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해군대학 교관 해병 중령 박홍갑

먼저 카자흐스탄 MCF 형제님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보니 카자흐스탄은 기독교 인구가 2%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이곳 대한민국은 기독교 인구가 20% 정도 되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며, 군대 내에서도 비교적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카자흐스탄 MCF 형제들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의 간증문이 부족하나마, 형제님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30여 년간 군 생활 기간 동안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1994년에 해군사관학교를 졸업 후 해병대 장교로 임관하였습니다. 생도시절 성경말씀을 읽던 중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성경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역사와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게 되었습니다. 생도 4학년 때 약 3개월간 3척의 해군함정을 타고 14개국에 걸쳐 순항훈련을 하였는데, 기독교도들은 모이는 시간과 공간이 많이 제한되는 상황에서도 매일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후 초급장교 때 매주 토요일에 포항에서 대구까지 왕복 4시간 거리를 3년 동안 다니면서 네비게이트 선교회라는 곳에서 성경말씀을 배우고 제자훈련을 받았는데,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지금 내 신앙생활의 기반이 되어준 시간이었습니다.

중대장 시절 나를 만나는 모든 중대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전했는데, 지금 돌아보니 경계근무 순찰, 전입신병 면담, 문제 사병 면담 등의 기회를 통해 거의 모든 중대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5년 전부터 KMCF 인터액션 스텝으로 섬기면서 근무하는 부대에서 성경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모임을 갖고 있으며, 지금은 해군·해병대 영관장교들을 교육하는 해군대학에서 교관으로 근무하면서, 학생장교들과 매주 MCF 인터액션모임을 통하여 성경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졸업한 형제들과도 SNS를 통해서 매일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MCF 형제들은 군대 내에서 신앙생활 여건이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함께 성경말씀을 나누고 모이기를 힘쓴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주실 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8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샬롬!!!